

부활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 주시니 걱정할 것 없고, 서로 사랑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하늘 나라에서도 같이 볼 수 있겠죠? 친구들은 다 착하니까, 꼭 부활할 거예요. 신부님도 노력해서 천국에서 부활하도록 노력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열심히 기도해요. 알았죠?

※복음의 주제(루가 20, 27-38 혹은 20, 27. 34-38)

부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인들도 대부분 그냥 육신의 소생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창조된 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살기에 죽음이란 있을 수 없고, 영원히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가 부활의 상태입니다.

첫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고 할까요? 오직 우리를 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만을 주고 받는 상태입니다. 사랑만 있는 부활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그 설명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중 제33주일(평신도 주일 11월 18일)

아름다운 성전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들 도미노란 게임 알아요? 도미노란 사각형의 블록을 넘어질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원하는 모양대로 세워서 완성한 뒤에 처음 하나부터 넘어뜨려 차례로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경기예요. 그런데 도미노가 성공하려면 도미노 하나 하나를 모두 세워야만 돼요. 중간에 하나가 쓰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하고, 세울 때 하나만 빠져도 중간에 도미노가 계속 넘어지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도미노 하나 하나는 아주 조그만 조각일 뿐이지만, 그 도미노가 수백 개, 수천 개가 함께 세워질 때 이 하나가 중간에 빠져 버리면 아무리 멋지게 세운 도미노도 실패로 돌아가지요. 그러니 이 하나는 아주 중요한 조각인 셈이에요.

그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오

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물었어요.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과 거짓말이 일어날 때를 조심하라며 그때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힘들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때가 성전이 허물어지는 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켜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인 우리 친구들과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모여서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름다운 성전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 중요하다고 뿔을 내고, 힘세다고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싸우고, 성당 밖으로 울며 나가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없어지고, 성당 안에는 온통 고통치는 소리와 우는 소리밖에 안 나겠지요. 누가 그런 모습을 아름답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말이에요.

성공한 도미노를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박수를 친답니다. 아름답고 대단해서 말이에요. 그것은 도미노 하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당에도 유치부부터 6학년 언니, 오빠까지 모두 모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쁜 마음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빨 빠진 도미노처럼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손 모으고 기도를 해 봐요. 나는 어떤 도미노인지. 제대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넘어져 있는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함께 하느님 얼굴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도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이 도미노를 완성하는 거예요. 알았죠?

※복음의 주제(루가 21, 5-19)

아름다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을 종말론의 시각에서 무슨 예언처럼, 세상 종말의 비참함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름다운 성전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분열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평신도 주일이기에 더욱 그 의미는 깊은 것 같습니다. 도미노나 피라미드가 완성되기까지 그 하나 하나의 돌과 조각들이 중요함을 생각할 때 하느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예언자나 분열꾼들 때문임을 떠올린다면 나는 그렇지 않는가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묵상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11월 25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일 먼저 천국에 간 사람

찬미 예수님! 우리 친구들, 집에 달려 있죠? 달력은 몇 월까지 있어요? 그래요. 12월까지 있어요. 일년은 열 두 달이고 그 마지막 달이 12월인 것처럼, 성당에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은 오늘이에요. 오늘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부르는데, 일년 동안 하느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다음 대림 제1주일이면 새해가 돼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래요. 십자가 위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달려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놀리고 했어요. 남은 살리면서 왜 자신은 못 살리시는가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유다인의 왕'이라는 이름까지 제 멋대로 붙이고 예수님을 놀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너무 외로우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 울어 주지도, 기도하지

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곁에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고, 예수님이 좋았던 아이들도 부모님을 따라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둘이 더 있었어요. 그 중 한 죄수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어요. 그걸 본 다른 편 죄수가 나무랐어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던 말이야?” 하고 말이에요.

사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이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면 나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아 주면 나도 병들 수 있고, 죄 지은 사람이랑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십자가에 못박았어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죄를 씌워서 돌아가시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예수님을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남아 있었어요. 뉘우치던 십자가의 죄수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정말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의 구원을 얻게 돼요. 즉,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있던 그 죄인 하나에게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맨 처음으로 하늘 나